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6. No. 1, pp. 453-461, 2018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8.16.1.453

의료미용 종사자의 직무요구가 전문성 및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자원의 조절적 역할을 중심으로

신향란, 모정희*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The Effects of Job Demand in Medical Estheticians on Expertise and Job Satisfaction: A Focus on the Manipulating Role of Job Resources

Hyang-Ran Shin, Jeong-Hee Mo*
Dept of Beauty Art, Songwon University

요 약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지면서 의료미용분야도 양적 질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의료분야에 뷰티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요구와 의료미용간의 직무자원 조절적 역할을 검증하고 직무요구, 직무전문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은 의료미용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Spss 21.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직무요구는 협력자원만이 직무자원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둘째, 직무자원이 의료미용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협력자원과 기기활용 자원이 정(+)의 영향이 나타났다. 셋째, 직무요구도와 전문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요구인 업무긴장도는 부(−), 업무부하량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미용 전문성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의료미용사의 인적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자원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직무요구, 업무 긴장도, 업무부하량, 직무 자원, 직무만족

Abstract As modern people's needs to be healthy and beautiful are increasing, medical skin care industry is growing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job demand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resource in employees who provided medical skin care services and the effects of job demand and job specialty on job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medical estheticians in Gwangju City and Jeonnam Province and were interviewed with the use of a questionnaire. The data was analysed using SPSS 21.0 and a frequency analysis, a factor analysis, a reliability analysis, a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as for job demand, only cooperation had the moderating effect of job resource. Second, when the effect of job resources on medical skin care specialty was inspected, it was discovered that cooperation and equipment applic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pecialty. Third, when the effect of job demand and specialty on job satisfaction was inspected, it was discovered that job tension had a negative effect on satisfaction and workload and specialty had a positive effect on satisfaction.

Key Words : Job Demand, Job Tension, Job loading, Job Resources, Job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Jeong-Hee Mo(jaycer@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3, 2017 Revised January 2, 2018
Accepted January 20, 2018 Published January 28, 2018

1. 서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본능이자 욕구이다[1]. 최근 매스미디어에서 생얼, 동안, 얼짱 등의 외모 중시적 용어들이 자주 등장하면서 개개인의 외모를 좀 더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1].

이와 더불어 의료기술과 보건 향상으로 노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주름관리, 기미나 검버섯 관리, 색소관리 등 건강하고 젊어 보이고자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 형태도 단순히 피부의 병변치료에서 벗어나 고객만족을 위해 진단에서 치료 그리고 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종합적 뷰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미용서비스 형태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2].

의료미용은 1998년 대한 피부과 개원의협회 발족으로 시작되었으며, 2000년 의약분업이후 피부과, 성형외과를 비롯하여 산부인과, 내과, 한의원, 정형외과 등 다양한 의료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3]. 점점 의료미용에 대한 기대가 점점 확대 되면서 의사와 간호사만으로 고객의 기호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나타나게 되면서 전문적인 뷰티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의료미용사이다[4,5].

의료미용사는 일명 메디컬 에스테티션, 메디컬스킨 테라피스트, 메디컬 뷰티테라피스트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우고 있다. 의료미용사는 일반 스킨케어 업무와는 달리 치료적 차원에서 의료기기, 약품, 레이저 등 병행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병원용 화장품인 코슈메슈티컬 등을 이용한 관리 방법이 포함되는 등 매우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6]. 김승희와 김주연(2008)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고객 재방문의 가장 큰 요인이 의료미용사라고 대답한 사람이 3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경애(2012)는 관리프로그램 수립 시 전문 의료진과 의료미용사 간의 최종 합의 후 결정되는 경우가 56.1%로 높게 나타나 병원성과에 있어 매우 의료미용사의 뷰티 서비스제공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7,8].

또한 의료미용사의 직무를 하는데 있어 의료미용사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의료진, 코디네이터, 간호사 등 긴밀한 협조가 뒷받침되었을때 전체적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로는 의료미용에 인식도 조사(서은주, 2016), 메디컬 스킨케어 만족도 조사(이경진과 오수연, 2014) 등 고객의 서비스와 관련된 조사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료미용사의 직무관련 인과관계를 밝히는 논문은 미흡한 실정이다[9,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미용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미용사를 대상으로 직무요구와 의료미용 관계에서 직무자원의 조절적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후속하여 직무요구와 직무 전문성이 만족도에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의료미용사의 직무에 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의료미용 종사자와 직무 전문성

의료미용 일명 메디컬 스킨케어라는 개념은 일반 피부미용관리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전문의를 통한 진단과 치료를 시작으로 스킨케어를 병행하는 통합적 토탈 관리 서비스를 의미한다[11]. 이 때 의료미용사는 직무특성상 의학적 치료, 성형적 시술이나 수술 후의 사후적 관리를 책임지는 의료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매우 필요하다.

의료미용사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관련 용어, 급변하는 의료미용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여야 한다. 또한 미용기기의 활용, 의료미용에서 사용되는 코스메슈티컬의 성분와 사용법 등에 대한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고, 해부생리나 생화학 등 의료처치와 관련된 전반적 직무의 이해와 함께 병원 근무를 위한 의료적 관리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익혀나가야 한다[12].

대부분 의료미용사의 교육은 미용관련 학과에서 메디컬 에스테틱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무에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최근 의료미용이라는 직무전문성으로 인해 학과가 신설되기도 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훈련기관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나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의료미용사의 경우 일반 피부미용사와는 달리 직무에 있어 전문성이 매우 요구되는 직종이라 할 수 있다.

2.2 직무요구

직무 요구는 직무 담당자의 물질적, 심리적 노력을 지

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환경이나 자극을 의미한다[13,14]. 즉 직무요구는 작업시간, 업무과중, 업무전이, 전문성 요구 등이 포함되어 서비스 산업에서 직무 스트레스, 불만, 이직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 할 수 있다.

2.2 직무자원

직무자원은 작업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며 직무요구와 연관이 되어 개인의 성장, 학습, 개발을 자극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의 요인들을 의미한다[15].

2.3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직무나 업무에 대한 긍정적 정서 상태로 즉 직무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16]. 선행연구자인 윤대균(2016)은 직무만족을 조직구성원에 의해 유지되는 태도로, 박소정(2016)은 개인의 발전과 조직의 원할한 운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1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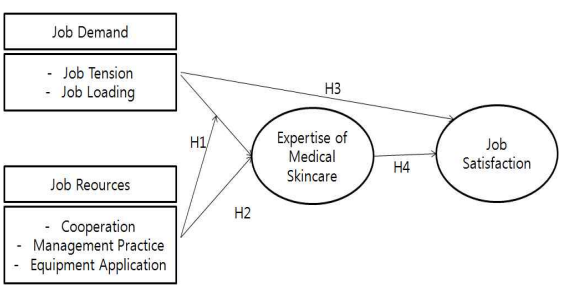
3. 연구내용 및 방법

3.1 연구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광주・전남 지역의 병원에서 메디컬 뷰티 서비스 업무에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4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4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가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직접 작성 후 회수한 후 최종 3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2 연구모형과 가설 설정

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1 직무자원 조절 역할 점증

가. 가설1(H1)

직무요구가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직 무자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1) 업무긴장도가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협력자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2) 업무긴장도가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관리실무 자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3) 업무긴장도가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기활용자원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4) 업무부하량이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협력자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5) 업무부하량이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관리실무자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6) 업무부하량이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기활용자원에 의해 조절될 것이다.

나. 가설 2(H2)

직무자원은 의료미용 전문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협력자원은 의료미용 전문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관리실무 자원은 의료미용 전문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기기활용자원은 전문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가설 3(H3)

직무요구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업무긴장도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업무 부하량은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 가설 4(H4)

의료미용 전문성은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의 대부분의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1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먼저 직무 요구는 의료미용 실무에서 행해지는 업무환경이나 자극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Brotheridge and Lee(2003)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여 업무긴장도와 업부 부하량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직무자원은 Ehrhart(2004)의 연구척도를 사용하여 협력자원(다른 근무자들과의 관리자원), 관리 실무(에스테틱과 관련된 자원), 기기활용(에스테틱 서비스와 관련된 기기활용) 3가지로 측정하였다.

또한 의료미용 전문성, 직무만족도 등은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이정민(2015) 등의 선행연구의 설문문항을 토대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3.4 통계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 Spss 21.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및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 분석 및 가설검증을 위한 단순 및 다중 회귀분석, 조절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tem	N(300)	%
Sex	Male	16	5.3
	Female	284	94.7
Age	20s	143	47.7
	30s	93	31.0
	40s	62	20.7
	50s	2	0.7
Fi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s	120	40.0
	college graduates	118	39.3
	university graduates	62	20.7
Career	below 1 year	74	24.7
	over 1 year-below 3 years	27	9.0
	over 3 years- below 5 years	117	39.0
	over 5 years- below 7 years	12	4.0
	below 7-9 years	45	15.0
	over 10 years	25	8.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가 284명(94.7%), 남자가 16명(5.3%)으로 직무특성상 여자 분포가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연령은 20대가 143명(47.7%), 30대 93명(31.0%), 40대 62명(20.7%), 50대 2명(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은 120명(40.0%), 전문대졸이 118명(39.3%), 대졸이 62명(20.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은 3년 이상-5년 미만이 17명(39.0%), 1년 미만이 74명(24.7%), 7-9년 미만이 45명(15.0%), 1이상-3년 미만이 27명(9.0%), 10년 이상이 25명(8.3%)의 순으로 나타났다.

4.2 변수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본 연구의 제시된 모형에서 사용된 구성 개념들의 단일차원성과 전체적인 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전에 각 구성 개념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은 연구대상의 저변에 존재하는 잠재 요인을 찾아보거나 자료를 요인으로 축소하여 살펴보는데 사용한다.

탐색적 요인 분석에 있어서 요인 추출은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 수를 줄이기 위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에는 직각회전(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차원들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4.2.1 직무요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먼저 독립변수인 직무 요구도 변수에 대해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업무 긴장도는 내가 하는 일에 항상 지속적인 주의 집중이 필요한 정도,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정도, 내가 처리하는 분야의 철저한 지식 요구 정도, 항상 열심히 일해야 하는 정도인 4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Job Demands

Items	Job Demands	
	Job Tension	Job Loading
- Job Demand 1	0.902	0.161
- Job Demand 2	0.891	0.144
- Job Demand 3	0.854	0.084
- Job Demand 4	0.842	0.151
- Job Demand 5	0.153	0.878
- Job Demand 6	0.063	0.871
- Job Demand 7	0.080	0.856
- Job Demand 8	0.264	0.819
Eigenvalue	3.149	3.008
explanatory dispersion(%)	39.363	37.601
accumulated dispersion(%)	39.363	76.963

업무 부하량은 직무를 할 때 보통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정도, 직무를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부족한 정도, 과도하게 많은 양의 일이 주어진 정도, 직무을 항상 빨리 처리해야 하는 정도의 4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전체 설명 분산 비율은 76.963%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에 대한 설명 분산의 값은 업무긴장도차원은 39.363%, 업무 부하량이 37.601%로 나타났다.

4.2.2 직무자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의료미용사의 직무자원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3>과 같다.

협력지원은 간호파트 협력관리, 담당 의사와 협력하는 관리지원, 코디네이터와 의료미용사와 동료협력지원의 3개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이들 변수들에 대한 전체 설명 분산 비율은 89.211%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에 대한 설명 분산의 값은 협력지원 자원은 32.939%, 관리 실무지원 자원은 36.657%, 기기 활용지원 자원은 19.615%로 나타났다.

<Table 3>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job resources

Items	Job Resources		
	Co operation	Management Practice	Equipment Application
-Cooperation2	0.946	0.224	0.076
-Cooperation1	0.930	0.217	0.077
-Cooperation3	0.915	0.225	0.168
-Management Practice3	0.029	0.908	0.009
-Management Practice2	0.243	0.892	0.167
-Management Practice1	0.266	0.891	0.131
-Management Practice4	0.445	0.846	0.012
-Equipment Application1	0.028	0.045	0.932
-Equipment Application2	0.197	0.131	0.901
Eigenvalue	2.965	3.299	1.765
explanatory dispersion(%)	32.939	36.657	19.615
accumulated dispersion(%)	32.939	69.596	89.211

실무자원은 기기를 이용한 영양 흡수 관리지원, 안면마사지, 팩 마스크 등 뷰티케어 지원, 레이저 후 관리 지원, 및 처치지원, 마무리 케어 관리지원의 4개의 항목, 기기활용자원은 피부진단기 및 안면관리 기기 자원, 체지방측정기 및 바디관련 기기 지원의 2항목으로 도출하였다.

4.2.3 의료미용 전문성 및 직무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의료미용 전문성 및 직무만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Table 4>와 같다. 의료미용 전문성은 레이저 후의 주의사항, 보톡스 등 다양한 시술의 설명 정도, 성형수술 등 다양한 수술 후 관리에 대한 보조적 설명정도, 필링과 박피에 대한 보조적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인 4문항으로 도출하였다. 직무 만족도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나의 업무에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정도인 2문항으로 도출 하였다.

<Table 4>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and job satisfaction

Items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Job Satisfaction
-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1	0.959	0.187
-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2	0.879	0.272
-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3	0.849	0.196
-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4	0.832	0.041
- Job Satisfaction 1	0.184	0.881
- Job Satisfaction 2	0.138	0.879
Eigenvalue	3.159	1.697
explanatory dispersion(%)	52.646	28.288
accumulated dispersion(%)	52.646	80.934

4.2.3 변수간의 신뢰도 검정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Cronbach's α 계수를 통한 신뢰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5>와 같다.

직무 요구 중 업무긴장도는 0.905, 업무부하량은 0.887로 나타났으며, 직무자원 중 협력자원은 0.960, 관리실무자원은 0.873, 기기활용자원은 0.839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미용전문성은 0.902, 종속변수인 직무만족도는 0.751로 나타나 모든 변수에서 일반적인 기준인 0.6을 상회하여 모든 변수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구성개념간의 상관관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입증된 척도들에 대하여 서로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관계를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Table 6>과 같다.

<Table 5> Reliability Analysis of all Variables

Constructs	M±SD	Job Tension	Job Loading	Cooperation	Management Practice	Equipment Application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Job Satisfaction
Job Tension	3.833±0.615	1						
Job Loading	2.858±0.731	0.306	1					
Cooperation	4.027±1.025	0.539	-0.080	1				
Management Practice	3.432±0.970	-.023	-0.254	0.489	1			
Equipment Application	2.798±1.141	0.274	0.050	0.249	0.207	1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4.081±0.723	0.711	0.149	0.527	0.271	0.327	1	
Job Satisfaction	3.940±0.550	0.378	-0.067	0.321	0.162	0.081	0.356	1

<Table 6> Analysis of correlations between all variables

Variables		Final number of Items	Cronbach's α
Job Demands	Job Tension	4	0.905
	Job Loading	4	0.887
Job Resources	Cooperation	3	0.960
	Management Practice	4	0.873
	Equipment Application	2	0.839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4	0.902
Job Satiisfaction		2	0.751

분석결과 변수들 사이의 방향성과 관계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협력자원은 업무 부하량과 관리실무자원은 업무긴장도와 업무부하량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4.4 직무요구도가 의료미용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직무자원 조절적 역할

직무요구가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은 직무자원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1을 검증한 결과 <Table 7> <Table 8> 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직무요구도의 업무긴장도가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지원자원의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협력지원자원만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β=1.730, t값=3.592, p<.001). 특히 업무긴장도는 담당의 및 간호파트너, 코디네이터와의 협력활동을 통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의료미용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내 향후 협력적 업무활동이 의료미용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7> A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 Resources in the Effects of Job Tension on Medical Skin Care Speciality

Independent vairables \ Subordinate variables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R^2	Adj.R^2
		Sandard β value	t value		
Job Demands	Job Tension	1.308	6.482***	0.555	0.550
	Cooperation	1.440	4.142***		
Job Demands× Cooperation		1.730	3.592***		
Job Demands	Job Tension	0.975	6.073***	0.591	0.587
	Management Practice	0.787	2.567**		
Job Demands× Management Practice		-.564	-1.561n/s		
Job Demands	Job Tension	0.641	5.642***	0.524	0.519
	Equipment Application	0.032	0.092n/s		
Job Demands× Equipment Application		0.118	0.299n/s		

** p<0.1 *** p<.001

한편 직무요구는 업무긴장도와 의료미용 전문성과의 관계에서 업무긴장도와 협력자원 및 관리실무자원의 직접적인 영향도 나타내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나타냈다. 그러나 업무긴장도가 기기활용자원을 통해 의료미용 전문성이 증진되진 않고 있음을 나타내 의료미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행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의 직접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전달이 효과적임을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관련 병원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및 1:1 관련지식의 학습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직무요구의 업무부하량이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자원의 조절역할을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나타났다.

<Table 8> An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Job Resources in the Effects of Work Load on Medical Skin Care Speciality

Subordinate variables / Independent vairables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R^2	Adj.R^2
		Sandard β value	t value		
Job Demands	Job Loading	0.290	1.089$^{n/s}$	0315	0.308
	Cooperation	0.632	2.566**		
Job Loading × Cooperation Support		-0.129	-.372$^{n/s}$		
Job Demands	Job Loading	0.864	4.402***	0.156	0.148
	Management Practice	1.033	4.763***		
Job Loading × Management Practice		-0.836	-3.352***		
Job Demands	Job Loading	0.513	3.803***	0.152	0.143
	Equipment Application	0.887	4.620***		
Job Loading × Equipment Application		-0.718	-3.076**		

*** p<.001

분석결과 업무 부하량과 의료미용 전문성과의 관계에서 관리실무자원(β=-.836 t값=-3.352, p<.001)과 기기활용자원(β=-.718, t값=-3.076, p<.01)이 부(-)의 유의한 조절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지원은 의료미용 전문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업무부하량에 대한 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지나친 업무는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될 수 없음을 나타내 적절한 어부의 배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4.5 직무자원이 의료미용전문성에 미치는 영향

직무지원자원이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직무자원 중 협력자원(β=.477, t값=8.493, p<.001)과 기기활용자원(β=.208, t값=4.155, p<.001)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실무 자원(β=-.006, t값=-1.023, p>.05)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2의 1)과 2의 3)은 지지되었으나 가설2의 2)는 기각되었다.

이로써 의료미용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협력적 지원과 다양한 기기활용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협력지원자원이 기기활용지원자원보다 더 높은 상대적 영향력을 나타내 무엇보다도 의사 및 간호파트, 코디네이터와의 협력적 업무활동이 우선되어야 함을 결과에서 나타내고 있다.

<Table 9> The Effects of Job Resources on Medical Skin Care Specialty

Subordinate variables / Independent vairables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Sandard β value	t value
Cooperation Support	0.477	8.493***
Management Practice	-0.006	-0.1023$^{n/s}$
Equipment Application Support	0.208	4.155***
R^2	0.318	
Adj.R^2	0.311	

*** p<.001

4.6 직무요구 및 의료미용 전문성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요구 및 의료미용 전문성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결과 <Table 10>과 같이 나타났다.

분석결과 가설3인 업무부하량은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긴장도는 직무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가설 3-1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설3-2는 지지되었다. 병원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배상윤과 김승희(2017)연구[19]에서도 직무요구는 직무만족에 융복합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되었다. 이는 심리적 압박에 따른 결과로 인해 업무긴장도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의료미용 전문성이 직무만족(β=.356, t값=6.563, p<.001)은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지지되었다. 이로써 의료미용 전문성은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0> The Effects of Job Demand and Medical Skin Care Specialty on Job Satisfaction

Subordinate variables / Independent vairables	Job satisfaction			
	Sandard β value	t Value	Sandard β value	t Value
Job Tension	-0.201	-3.650***	-	-
Job Loading	0.440	7.967**	-	-
Expertise of Medical Skin Care	-	-	0.356	6.563***
R^2	0.180		0.127	
Adj.R^2	0.174		0.124	

*** p<.001

5. 결론

본 연구는 의료미용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미용사의 직무요구와 전문성간의 관계에서 직무자원의 조절적 역할을 검증하고, 직무자원과 직무의 전문성이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과관계의 틀을 밝혀 의료미용직무만족을 이끄는 선행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 요구도의 업무 긴장도가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무자원의 조절적 역할을 분석한 결과 협력지원만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무자원의 의료미용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자원 중 협력지원 자원(β=.477, t값=8.493, p<.001)과 기기 활용지원 자원(β=.208, t값=4.155, p<.001)이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 실무지원 자원(β=-.006, t값=-1.023, p>.05)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무 요구도 및 의료미용 전문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업무 부하량은 직무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 긴장도는 직무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의료미용의 전문성이 직무만족도(β=.356, t값=6.563, p<.001)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결과 의료미용 분야에서 의료미용사의 직무 요구와 전문성간의 직무지원 자원의 조절적 역할을 검증하고, 직무 요구도와 직무만족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는 시사점이 있었다. 전문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정확한 전문성의 내용이 각 의료기관마다 실시되는 관리의 형태나 지역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S. Y. Cho, "The Medical of Job Satisfaction of medical Skincare Aesthetician on Service Quality", Journal of Investigative Cosmetology, Vol. 13, No. 3, pp.267-276, 2016.

[2] K. J. Lee, S. Y. Oh,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Personality, Consumer Sentiment and Purchasing Behavior in Medical Skin car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21 No. 1, pp.73-81, 2015.

[3] J. E. Lee, "A Study on the state of medical skin care and satisfaction level", Master of Suk kmyung Women's Univ. pp.2-3, 2014.

[4] J. E. Lee, E. Y. Choi, "A Study on the State of Medical Skincare and Satisfaction Leve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5, No. 1, pp.73-87, 2015.

[5] Y. H. Kim, "The Working Conditions of Estheticians in Medical Clinic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Health and Welfare for Elderly, Vol. 8, No. 1, pp.155-166, 2016.

[6] M. S. Lee, "The Effects of DISC Behavioral Types of Medical Aestheticians on Their Job Satisfaction", Master of Seokyung Univ. pp.2-5, 2014.

[7] S. H. Kim, J. Y. Kim, "Effects of Service Quality Awareness by Adult Males and Females Medical Skin Care Customer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Intent of Revisi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14, No. 4, pp.1129-1136, 2008.

[8] H. Y. Lee, K. Y. Lee, "The Occupational Conditions of Medical Skin care Estheticians Working in the Dermatology Clinics", Journal of aesthetics and cosmetics society, Vol. 10, No. 1, pp.69-78, 2012.

[9] E. J. Seo, "A Study on the Effects of Experience of Medical Skin Care on Confidence and Quality of Life", Master of Jung Ang Univ. pp.9-10, 2016.

[10] K. J. Lee, S. Y. Oh, J. H. Jun, "The Relationship between Brand Personality, Consumer Sentiment, and Purchasing Behavior in Medical Skin c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 21, No. 1, pp.1075-1083, 2015.

[11] M. S. Lee, "The Effects of DISC Behavioral Types of Medical Aestheticians on Their Job Satisfaction", Master of Seokyung Univ. pp.2-5, 2014.

[12] J. I. Kim, "A Study on the retraining plans of medical skin care", Master of Yongin Univ. pp.3-5, 2003.
[13] R. Schaufeli, A.B. Baker, "Job Demands, job resource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Burnout and Engagement: A multi-Sample Study", Oraganizational Behavior, Vol. 25, pp.293-315, 1982.
[14] Y. H. Cho, "The Effects of Job Demands and Job Resources on Job Burnout", Master of Ga Chun Univ. pp.7-10, 2017.
[15] C. M. Brotheridge, R. T. Le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Emotional Labour Scale," Journal of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76, pp.365-379, 2003.
[16] K. M. Lee, T. W. Roh, "The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Job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 fPerson-Organization F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9, pp.155-165, 2017
[17] D. G. Yeo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rvant Leadership in Hotel Organization on the Attitude of Employees", Master of Dae Gu Univ. pp. 18-28, 2017.
[18] S. J. Park, "A Study organizational informal communication e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by hotel industry",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 41, No. 1, pp.85-103, 2005.
[19] S. Y Bae, S. H. Kim,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 Efficacy, Job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al Stress on Job Satisfaction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7, pp.239-246, 2017.

신 향 란(Hyang Ran Shin) [학생회원]

- 2016년 2월 : 동신대학교 뷰티미용학과 (미용학사)
- 2018년 1월 ~ 현재 : 송원대학교 휴먼산업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석사과정
- 관심분야 : 피부미용, 미용교육
- E-Mail : kk53shl@hanmail.net

모 정 희(Jeong Hee Mo) [정회원]

- 2011년 7월 : 광주여자 대학교 미용학과(미용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피부미용, 의료미용
- E-Mail : Jaycer@hanmail.net